

참고자료

서천 달고개 모시마을

양 만 규 대표
(달고개모시마을)

사례명 : 월산리 달고개 모시마을

주요사업	한산모시를 테마로 모시생산과 더불어 관련제품 생산 및 농촌체험
주요품목	모시송편, 모시가래떡, 모시한과
추진주체	월산리 영농조합법인
성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매출 3억 6천만 원(2013년 목표) • 오프라인(휴게소, 연수원, 관광 홍보관 등) 및 온라인(s-mall, 옥션, G마켓 등) 판로 구축으로 안정적인 주민소득 창출 • 입는 모시에서 먹는 모시로의 전환으로 모시산업의 다각화 • 자발적 마을 운영체제 구축



가. 사업개요

달고개 모시마을은 2005년도 ‘서천 어메니티 마을’로 선정되어 지원금 1억을 받으면서 농촌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2006년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모시떡, 모시공예, 천연염색, 농촌체험 등 농촌 체험마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모시 관련 식품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2011년 9월부터 모시로 송편과 가래떡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마을 주민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들에 맞는 마을 공동 사업을 실시하여 마을 구성원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모시 생산으로 인한 소득 창출은 경제·사회적으로 마을 공동체 삶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달고개 모시마을은 ‘최고로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가치를 테마로 누구나 들르고 싶고 고향 같은 마을로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주요특징

마을 주민 모두가 사업에 참여

달고개 마을의 총 가구 수는 52가구 이며 이중 46가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고령화 농가는 전체 농가의 65%로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체험마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령 농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어 고령 농가 소득에 이바지하게 되었고, 노령층 자존감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모시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50세 이상 참여자는 전체 52명 중 46명에 이르러 마을 전 구성원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직접 참여자(직원) 또한 48%에 이른다. 그 외 모시 삶기와 체험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 및 급식 서비스를 위한 일용 근로자는 총 33명(2013.6월 기준)이며 영농회, 부녀회, 노인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달고개 마을 일반 현황

농가수	주민(60세이상)	조합원(출자자)	경작농가(비율)	주 농산물
52가구	90(63)명	46(37)명	15(35%)농가	쌀(90%), 모시, 배

모시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지역 연계 활동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계절에 맞는 전통 행사인 밀밭 밟기, 배나무 봉지 씌우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방문객수가 증가하여 2013년에는 3,000명 이상 유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연계발전에 있어서도 주변 마을 및 서천군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직판장, 숙박, 체험 등 달고개 마을에서 경험 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 하고 있다.

<표>마을 문화행사 현황

향토문화축제	시행월	장소	축제내용
배꽃축제	2012년4월중 배꽃개화시기	달고개 모시마을 전통테마관	농촌체험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
칠월칠석제	2007년부터 매년 음력7월7일	달고개 모시마을 전통테마관	도농교류 및 화합행사
우리밀 밟기	2009년부터	달고개 모시마을 우리밀 재배농가	도시민 초청 및 전통놀이
마을주민 화합잔치	2013년 5월	달고개 모시마을 전통테마관	출향인사 및 고향주민들간 화합잔치
마을주민 생일잔치	2008년부터 매월	달고개 모시마을 전통테마관	생일잔치 및 선진지 관광




공동체 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행복’, ‘배려’, ‘사랑’을 실천하는 마을

달고개 모시마을은 서천 사랑장학회와 기부 협약을 맺고 매년 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마을 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초고령 노인분들을 위한 생일잔치를 매달 시행하고 있다. 매년 600만 원 정도를 마을 주민의 화합을 위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령층의 패배감, 무력감 해소와 자존감 회복을 돕고자 86세 최고령의 주민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달 마을 공동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6차산업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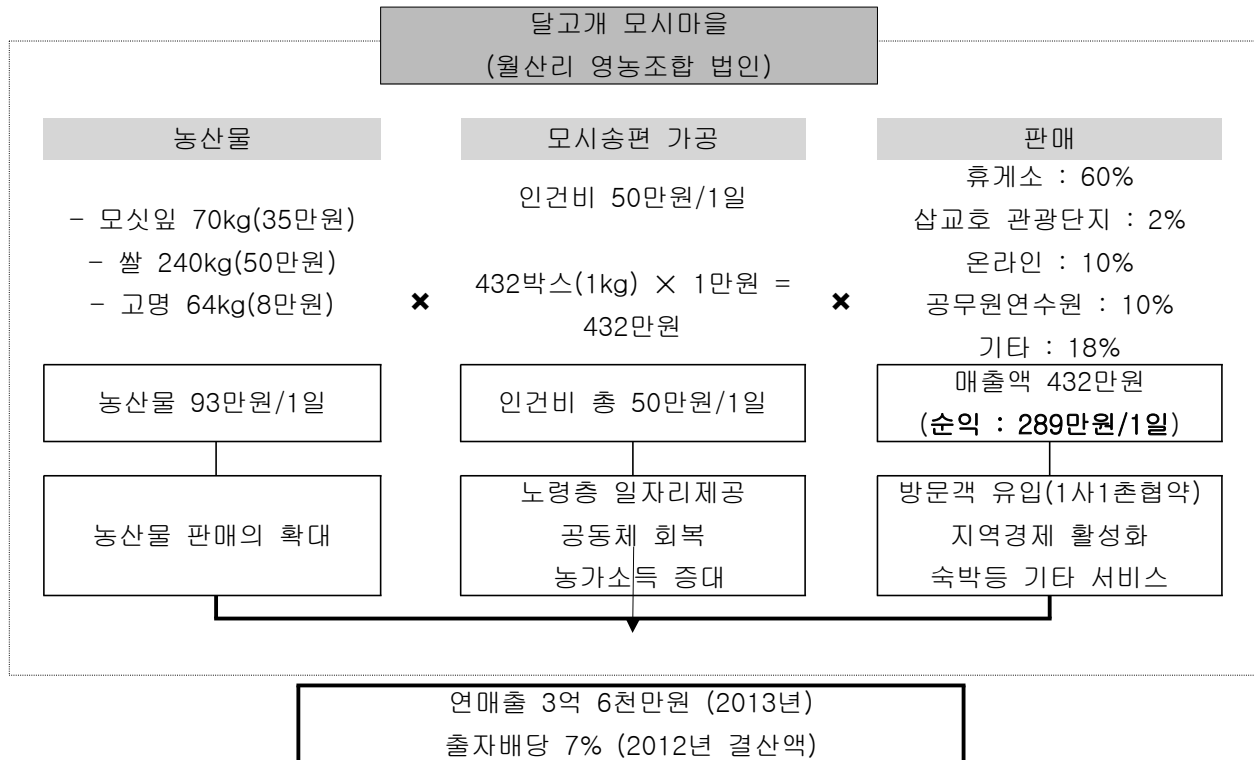
달고개 마을의 주 농작물은 쌀이며 부작물로서 5천 평가량 모시잎을 재배하고 있다. 모시잎은 6월, 8월, 10월 3회에 걸쳐서 수확하고 마을에서 생산된 모시잎은 전량 모시송편, 모시떡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 수확된 모시잎은 전통 테마관 한편에 마련된 가공시설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송편과 떡으로 만들어지며 온라인과, 휴게소, 직판장, 관광단지에서 전량 판매되고 있다. 다만 마을 전체에서 생산되는 모시가 불과 5톤에 불과하여 인근 마을에서 5톤가량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달고개 모시마을 6차산업화 형태

1차		2차		3차
쌀, 모시, 콩	×	모시송편, 모시 인절미, 모시개떡, 모시한과,	×	휴게소, 삼교호관광단지, 공무원연수원, 온라인, 직판 다양한 농촌 체험
				

마을은 ‘사랑’과 ‘행복’ 이라는 테마로 마을 노령층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모시송편을 만들면서부터 마을의 공동체 회복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모시잎을 6차산업화하면서 농가 소득 또한 증대되었다. 이는 단순 모시잎을 시장에 판매할 경우 아래 표에서와 같이 1kg당 4,600원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반해 모시잎을 가공하고 떡을 만들어 팔면 약 3.5배인 15,000원을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표> 6차산업화를 통한 달고개 모시마을 수익 구조



다. 사업성과

매출부문

달고개 모시마을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2012년에는 총 2억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3년에는 체험소득을 제외한 모시송편, 모시떡 판매만으로 3억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월산리 영농조합 법인 결산에 따라 출자금의 7%를 배당하여 마을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현재)		
매출	체험소득	매출	체험소득	매출	체험소득	배당
8천만	1천2백만	2억4천만	1천8백만	1억4천만	1천만	출자금의 7% 배당

고용창출 부문

2011년 모시떡 제조를 시작하면서 제조 관련 직접고용 인력은 6명으로 미미하였으나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2013년에는 36명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어느 정도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비록 고노동과 장시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은 자동화하여 하였으나, 송편 빚기, 판매, 체험활동에 마을 일손을 투입함으

로써 고령의 주민들이 대화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현재)	
직접고용	간접고용	직접고용	간접고용	직접고용	간접고용
7명	-	23명	10명	23명	13명

판매처 확보

2011년 모시송편 제조 초기에는 단순 방문객이나 행사장 참여를 통한 판매 방식에 불가하였으나, 지역기관과 매체와 제휴를 통해서 판매망을 확보해 왔고 양만규 대표의 노력으로 2012년 온라인 쇼핑몰 3곳과 휴게소, 연수원, 지자체 홍보관 등 다수의 오프라인 판매처를 확보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행한 결과 매월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

라. 성공요인

월산리 달고개 마을은 서천군 한산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산면은 한산모시로 유명한 고장이다. 과거부터 한산모시를 이용해 모시옷을 만들었고 국내에서는 모시로는 가장 유명한 지역이다. 단순히 월산리에서도 모시옷을 만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나, 최근 먹거리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전통음식, 얼굴 있는 음식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가 있고 '특산품 한산모시'라는 유명세와 안전한 전통 먹거리라는 시대적 상황이 잘 맞아 떨어져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을 주민의 70% 이상이 60대인 고노령화 마을이라는 위기를 욕심을 버리고 '삶'을 위한 행복추구, 자존감 회복, 배려로서 승화하여 전체 마을 구성원이 참여하는 참신한 농촌개발 사업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익금을 지역 약자에게 기부하고, 매달 마을 어르신들 위한 생일잔치를 베풀어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테마, 그리고 공동체성과 더불어 도농교류를 통한 지도자의 판로 확대 또한 큰 성공요인이라 생각된다.

마. 금후 발전방안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1차 생산의 자립화

달고개 모시 소비량은 연간 10톤이다. 이중 직접 생산비중은 5톤이며 나머지 절반은 주변 마을에서 들여오거나, 전남 영광에서 고품종 모시잎을 구매하고 있다. 한산

모시라는 지역 특산품과 한산 모시 송편이라는 대표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소비되는 쌀과 모시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모시식품의 다각화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마을공동체소득창출사업’으로 선정되어 가공시설을 확충을 하였고, 가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시식품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이다. 모시 송편뿐만 아니라 모시한과, 퓨전 떡국용 모시 가래떡, 기타 다른 종류의 식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면 한산지역은 모시옷과 더불어 모시식품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귀농귀촌인의 유입

월산리 달고개 마을은 현재 90% 이상이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쌀은 모시떡에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료로서, 쌀을 비롯해, 콩과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젊은층이 필요하고 귀농인이나 출향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농촌체험과 판매, 마케팅을 위해서도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마을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